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국역 '추안급국안' 90권 출판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4-09-26 13:13 | 최종수정 2014-09-26 13:18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역 '추안급국안' 90권 출판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6일 10년 만에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90권을 국역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사업은 2004년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해 10년간 진행된 방대한 사업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2014.9.26 <<지방기사 참조>> chinakim@yna.co.kr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6일 10년 만에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90권을 국역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사업은 2004년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해 10년간 진행된 방대한 사업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이 사료에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 직업 영역으로는 관료와 상인, 농민, 궁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10년 만에 국역 '추안급국안' 90권 출판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6일 10년 만에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 90권을 국역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사업은 2004년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해 10년간 진행된 방대한 사업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2014.9.26 <<지방기사 참조>> chinakim@yna.co.kr

추안급국안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른 역사서에 요약·압축된 사건의 내용이 심문, 진술 형태로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돼 있어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은 탐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승주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은 "추안급국안은 다른 역사서에서 지면의 제약으로 서술하지 못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역모 사건의 진실 규명과 사건 가담자들의 내면,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원천 정보원"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 <인천아시안게임>박태환만 바라본 한국수영, 36년 만에 노골드 위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7145990>

인쇄하기

취소